

문화접변 유형에 따른 조선족 청소년의 적응
: 심양과 할빈을 중심으로*

Korean-Chinese Adolescents'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in Shenyang and Harbin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교수 조복희**

연변대학교

교수 박태수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전임강사 한세영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hee University

Professor : Cho, Bok-Hee

Yanbian University

Professor : Park, Tae-Soo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 Han, Sae-You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cculturation type and adjustment of 914 Korean-Chinese adolescents living in Shenyang and Harbin, China. Adolescents completed a questionnaire consisted of items regarding acculturation, school adjustment, expectation of education,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Adolescents in Shenyang spoke more Chinese and showed lower internal locus of control than adolescents in Harbin.
- 2) Adolescents in Shenyang showed more integration and assimilation types, while adolescents in Harbin showed more separation type.
- 3) Adolescents in Shenyang showed difference in their adjustment across acculturation types, while adolescents in Harbin did not. In Shenyang, adolescents of integration and assimilation showed higher expectation of education, and adolescents of separation revealed higher internal locus of control.

▲주요어(Key Words) : 조선족 청소년 (Korean-Chinese adolescents), 문화접변(acculturation),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교육기대(expectation of education), 내적통제성(internal locus of control)

* "이 논문은 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KRF-2003-072-HM2001)"

** 주 저 자 : 조복희 (E-mail : osu85@hanmail.net)

I. 서 론

이민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은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이민자로서 큰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모국의 생활방식이나 가치관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문화권으로 이주하게 된 이민자들은 새로운 환경이 요구하는 가치관이나 생활방식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양식을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적응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기존의 가치를 모두 포기하고 주류문화의 새로운 가치관과 풍습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처럼 새로운 문화권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주류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의 가치와 생활양식, 언어등을 새롭게 조정해나가는 다양한 형태의 과정을 문화적변(acculturation)이라고 한다(Mendoza & Martinez, 1981).

문화적변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북미 문화권으로 이주한 이민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민가족의 문화적변 정도(Leonard-Spark & Saran, 1980), 청소년의 사회화(Patel, Power, & Bhavnagn, 1996), 10대 청소년들이 겪는 갈등(Chui, Feldman, & Rosenthal, 1992), 어머니의 양육행동(Koayashi-Winata, & Power, 1989; Nauck, 1988). 이러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문화적변 정도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이 달라진다. 소수민족으로서 살아가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을 찾아야 하는 해외한인사회에서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변과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미국과 캐나다에 이주한 이민가족에 관한 연구로 다른 문화권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의 문화적변과 그에 따른 청소년의 적응에 대해서는 크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민자들의 이주동기와 주류사회의 환경이 다양하므로 이러한 다양성 또한 각 이민국가의 이민자들의 문화적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장섭, 1993).

중국의 조선족은 이민사회의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으로 민족집단화가 이루어져 중국문화 속에서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지켜가고 있는 독특한 환경을 가진 사례로서 북미나 유럽지역의 한인 이민자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지역과 달리 중국 조선족 이주민 집단은 소수 민족집단을 구성하여 생활하였으므로 주류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하기보다는 보다 다양한 문화적변 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윤복남, 1997).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심양과 할빈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적변유형을 파악하고, 그 문화적변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오랜 분단의 환경에서 비롯되는 서로에 대한 단절감을 갖고 있는 북한과의 교류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북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중국 조선족들에 대한 연구는 중국진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북한에 관한 이해로 한걸

음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적변

이민자의 적응은 모국의 가치관이나 문화가 주류문화의 그것과 차이가 클수록 문제가 심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Nguyen, Messe, & Stollark, 1999), 따라서 같은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서양문화권에 이주하느냐 동양문화권에 이주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적변 과정을 겪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중국내 조선족들의 이민사는 미국 등 다른 문화권으로의 이민사보다 오래되었으며 법적으로 중국국적을 가진 중국인으로서의 정체감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노치영, 2000)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문화적변과정은 북미 문화권으로 이주한 한국 이민자들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적변을 나타내는 지표나 기준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연구동향에 따르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이전의 가치를 새로운 가치로 대치하는 문화적 동화과정(이)이 아닌, 주류문화에서 경험한 스트레스에 따라 끊임없이 양쪽 문화의 요구를 선택하고 수정하는 통합적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주를 이루며(Buriel, 1993; Patel et al., 1996) 국내에서도 이러한 기준에서 문화적변에 접근하는 연구가 행해진 바 있다 (박성연 · 김미경 · 도현심, 2000).

해외 이주민들의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은 주로 동화와 문화적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져 왔는데, 동화가 한 개인이나 집단이 민족과 문화가 다른 사회에서 일상생활의 교류와 상호참여를 통해서 그들이 지닌 기존의 사회문화의 요소가 무의미하게 되어가는 과정(이장섭, 1993)으로 결국에는 본국의 가치관이나 소속감 등을 버리고 새로운 이주국의 가치관이나 행동특성으로 대치하는 것(Gordon, 1964; Laroche, Kim, Hui, & Joy, 1996)을 뜻하는 반면, 문화적변이란 새로운 문화의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이주국의 행동양식을 채택하는 것(Lonner & Berry, 1989)이며 상대집단 문화의 일방적 수용이라기 보다는 상호작용적인 문화의 변동으로 볼 수 있다.

이민자들의 적응과정을 단일선상에서 보는 동화의 관점을 택할 때, 문화적변의 정도(degree)를 측정하게 되며, 다차원적인 모형에서 보는 문화적변의 관점을 택할 때, 문화적변의 유형을 측정하게 되는데(López, Ehly, & García-Vázquez, 2002), 최근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다차원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민자들은 통합(이중문화체계), 동화(주류문화 수용), 분리(이주 전 문화를 고수), 주변화(두 문화 모두 거부)의 4가지 유형 중 한 유형에 속하게 된다.

문화적변유형을 구분하는 지표 또한 다양하여, Szapocznik과 그의 동료들(1980)은 이문화 공존(biculturalism)과 문화적 참여(cultural involvement)를 기준으로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으

며, Berry(1984)는 문화보존(cultural maintenance)과 접촉과 참여(contact and participation)를 4개의 문화접변 유형 구분의 2가지 기준으로 삼았다. Lee(2000)의 경우, 언어와 일상생활의 문화적 활동으로 문화접변의 정도를 가늠하였다. 문화접변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이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사회적 활동, 문화적 행사, 민족에 대한 정체감 등을 측정한 연구들이 있는데, 특히 언어적 변수는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으며(Harwood, Leyendecker, Carlson, Asencio, & Miller, 2002), 이는 언어습득이 주류사회에의 적응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생활 문화적 활동은 경축하는 명절이나 즐겨먹는 음식 등으로 표현되며 이는 이주하기 전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는지 또는 주류문화의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수용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준다.

Castro(2003)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내 백인계와 흑인계를 분석하였을 때 두 집단 모두 통합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동화, 분리, 주변화의 순으로 문화접변 유형이 나타났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화접변 유형으로 통합유형을 꼽았으며 동화와 분리에 있어서는 그 분포의 순위가 연구마다 조금씩 달랐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변화 유형은 극히 적은 분포를 나타냈다(Berry, Kim, Power, Young, & Bajaki, 1989; Castro, 2003; Doná & Berry, 1994; Piontkowski, Florack, Hoelker, & Obdrzálek, 2000; Roccas, Horenczyk, & Schwartz, 2000).

특히,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경우 서구국가로 이민한 한국인들과 달리 그 이민사가 오래되어 중국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많았으며, 외모에 있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아시아국가인 중국으로 이민하여 좀 더 중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한편 조선족은 중국사회에 거주하면서도 조선족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기도 해, 중국문화와 조선족 문화 양쪽에 모두 적응하지 못하는 주변화 유형은 매우 드물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문화접변 유형 구분기준을 바탕으로 언어사용과 문화적 참여를 기준으로 삼아 심양과 할빈의 청소년을 통합, 동화, 분리의 3가지 문화접변 유형으로 구분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심양과 할빈의 조선족 사회

중국의 조선족은 대개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 동북 3성에 집거마을의 형태로 거주하며 국내의 조선족에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연변 자치주로 알려진 길림성의 연길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화접변이란 이민자들이 처한 현지의 상황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예측에 근거하여, 길림성 연길시의 조선족들에 대한 연구결과가 중국내 거주하는 모든 조선족들에게 확대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들므로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에서와는 달리 조선족이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요녕성

과 흑룡강성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실태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심양과 할빈은 요녕성과 흑룡강성의 대표적인 도시이다. 심양은 북경, 상해, 천진에 이은 중국 4대도시로, 중국 요녕성의 경제·문화·정치중심인 대도시이며 중화학공업이 크게 발달하였고, 빈부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체 386만(1998)명의 인구 중 90%가 한족이며, 그 중 심양시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약 8만여명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심양시 서탑지구에는 조선족 공공건물을 비롯하여 교육기관·병원·교회·음식점 등이 밀집되어 있다. 할빈은 중국 흑룡강성의 성도로 교육, 정치, 문화의 중심도시이며, 공업과 교통의 중심이지만, 인구는 257만명(1998)으로 심양에 비해 작은 편이며, 조선족은 약 7만명 정도이다. 이들 도시는 인구219만 중 조선족이 40%를 차지하는 연길시와는 달리 조선족의 인구의 비율이 매우 낮다. 요녕성 심양지역에는 평안도 출신이 많고 반면 흑룡강성과 할빈 지역은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이 많다(한국민족박물관, 1997, 1998). 심양과 할빈은 그 도시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심양의 경우 국제화와 산업화가 더 진행된 상태의 도시로 할빈보다 많은 정보와 기회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다. 특히 이들 지역이 자치주가 아니며 소수민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환경임을 고려할 때 이들이 거주하는 도시환경의 차이는 문화접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조선족은 북미나 유럽등에 거주하는 이민자와는 달리, 중국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에 힘입어 비교적 민족어와 민족문화를 잘 지켜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개혁개방 이후 인구유동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특히 한족과의 문화적 접촉으로 인해 조선어를 사용하던 언어적 정체성이 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감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한편, 중국 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류문화에 적응하는 것 또한 조선족 청소년들에게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심양과 할빈이라는 다른 도시환경에서 거주하는 조선족 청소년들이 어떠한 형태로 문화접변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알아보아 환경에 다른 그들의 조선족으로서의 민족성 유지와 중국 주류문화의 적응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3. 문화접변과 청소년의 적응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은 가족 뿐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조선족 청소년은 가정에서 제공되는 조선족 문화와 언어를 경험함과 동시에 학교와 사회에서는 중국의 문화와 언어를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접변의 경험은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북미지역의 이민자가정의 자녀에 국한되었다.

청소년이 성장하게 됨에 따라 생활의 많은 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고 학교생활의 영향이 점점 커짐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적변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 또한 학교적응과 학업성취 등에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Lóez, Ehly와 García-Vázquez (2002)는 멕시코계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화적변의 통합유형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성취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Truba(1988)는 소수민족 청소년들이 언어와 생활양식, 학습방법 등의 문화적 가치의 차이로 인해 주류문화의 교육체제에서 실패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학업성취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정서적 적응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가정에서는 조선족 부모의 영향 아래 있고 학교에서는 중국문화를 경험해야하는 조선족청소년들의 경우 특히 정서적으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발달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한국의 아동보다 연변 조선족 아동이 정서적 학교적응과 학업자아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인 바 있다 (Cho, Park, & Lee, 2004). 이는 조선족 아동의 문화적변 경험이 자신의 교육에 대한 생각과 내적 통제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따라서 청소년이 어떠한 문화적변 유형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학교적응과 교육기대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Galper, Wigfield, 그리고 Seefeldt(1997)는 교육성취에 대한 기대에 대한 연구에서 자녀에게 거는 부모의 높은 교육적 기대를 묘사한 바 있다. 고교졸업후 교육을 더 받기를 원하는 부모가 90%이상이고 55.8%의 부모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기를 원했으나, 실제로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느냐는 질문에는 21.77%만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의 실제 상황보다 높은 교육적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미지역의 이민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동양계 어머니들은 높은 교육적 기대를 나타냈으며 한 연구에서는 문화적변에 있어 동화유형의 한국계 미국어머니가 자녀의 창의성을 더 격려한다는 결과를 제시해(Farver, & Lee-Shin, 2000) 문화적변 유형과 자녀의 교육이 상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교육적인 기대나 신념을 분석한 연구는 많으나(Galper, Wigfield, & Seefeldt, 1997; Okagako & Frensch, 1998; Okagako & Sternberg, 1993) 아동 또는 청소년 본인이 자신의 교육수준에 대해 갖는 기대나 목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부모의 문화적변과 교육기대와의 상관을 밝힌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의 문화적변 태도와 자녀의 문화적변 태도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자녀의 문화적변 태도가 주류문화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밝힌 선행연구의 결과(Aycan & Kanungo, 1998)와 함께 고려해 볼 때, 청소년 자신의 문화적변 태도 또한 그 자신의 교육기대와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문화적변과 내적통제성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드물지만,

Castro(2003)의 연구에서 문화적변은 자아정체감과 관련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문화적변이 심리적인 적응과 상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행동과 그 결과의 인과관계를 지각하는 방식인 내적 통제성은 Cho, Park 과 Lee(2004)의 연구에서 한국아동보다 연변 조선족 아동에게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한국의 아동보다 중국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 아동의 내적통제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모국과는 다른 주류사회인 중국에 거주하면서 체험하는 문화적변의 경험이 행동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문화적변과 내적통제성이 상관이 있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시사되었으나 문화적변 유형에 따른 내적통제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족 청소년의 3가지 문화적변 유형별 분포와 비율을 살펴보고, 문화적변 유형별로 조선족 청소년의 적응(학교적응, 교육기대, 내적통제성)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심양과 할빈의 조선족 청소년들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심양과 할빈 조선족 청소년의 문화적변 유형별(통합, 동화, 분리)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심양과 할빈 조선족 청소년의 문화적변 유형에 따라 학교적응, 교육기대, 내적통제성간에는 차이가 있는가?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심양에 거주하는 조선족 중고생 669명과 할빈에 거주하는 조선족 중고생 24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분포는, 심양의 조선족 중고생의 경우 남아 330명(49.3%), 여아 315명(47.1%), 무응답 24(3.6%)으로 구성되었으며, 할빈의 조선족 중고생은 남아 82명(33.5%), 여아 159명(64.9%), 무응답 4명(1.6%)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의 연령은 심양 중고생의 경우 평균 14.28세였고 12세에서 18세 사이의 분포를 보였으며 할빈 중고생의 경우 평균 15.77세로 13세에서 18세의 분포를 보였다. 최근 조선족의 한국취업이 늘어남에 따라 심양의 경우 청소년 669명 중 291명의 부모(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쪽)가(43.50%), 할빈의 경우 청소년 245명 중 162명의 부모(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쪽)가 한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66.12%). 부모의 한국 거주로 인해 부모 이외의 친인척과 거주하는 경우가 심양의 경우 207명(30.94%), 할빈의 경우 162명(45.71%)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문화접변

본 연구에서 문화접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Mendoza와 Martinez(1989)가 멕시코계 미국인 청소년의 문화접변 형태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The Cultural Life Style Inventory(CLSI)의 29문항을 바탕으로 Lee(2000)가 한국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한 27문항 중 일부인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ee(2000)의 27문항은 크게 두가지 형태의 문화접변을 측정하였는데, 하나는 문화적 저항, 결합, 그리고 전환이며, 다른 하나는 가족내 언어, 가족외 언어, 사회적 합병과 활동 요인, 문화적 친밀감과 활동요인,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문화와 관련된 “즐거먹는 음식”, “자부심을 갖는 문화는 어느나라 것” 등의 5문항과, 언어와 관련된 “형제들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말” “어떤 언어로 된 신문/잡지를 많이 읽습니까” 등의 5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 항상 조선어(조선족) (2)대개 조선어(조선족) (3)대략 반반씩 (4)대개 한어(한족) (5)항상 한어(한족)의 5점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언어관련 5문항의 Cronbach's alpha는 .80이고 문화와 관련된 5문항의 Cronbach's alpha는 .56으로 신뢰도가 낮은 편이나, 척도의 개발자(Mendoza & Martinez, 1989; Lee, 2000)들이 앞서 시험하고 검증한 척도이므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위의 척도를 통해 수집한 자료로 문화접변 유형을 구분하였다. 통계적으로 비교분석하기에 의미가 없을 정도로 주변화 집단의 분포가 작다는 선행연구(Castro, 2003)와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중국 조선족 사회의 특수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통합, 동화 및 분리의 세 문화접변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 문화접변 유형인 통합(언어와 문화 요인에 있어 중국과 조선족 모두 수용), 동화(언어와 문화 요인에 있어 중국 수용) 및 분리(언어와 문화 모두 조선족 수용)는 언어관련 점수와 문화관련 점수를 기초로 구분되었다. 각각 언어와 문화 점수의 'M(평균)±0.5SD(표준편차)'의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5점 척도로 이루어진 언어와 문화요인에 있어 중국과 한국 양쪽을 다 수용하는 의미를 담은 점수가 3점을 전후해 있으므로 통합유형의 경우 언어요인 점수가 'M-0.5SD'이상이고 'M+0.5SD'이하이며, 동시에 문화요인 점수 또한 'M-0.5SD'이상이고 'M+0.5SD'이하인 사례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5점 척도에서 중국언어와 문화에 동화된다는 의미를 담은 점수가 5점 가까이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중국문화와 언어를 수용하는 동화유형은 언어와 문화요인이 모두 'M+0.5SD' 이상인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조선족 문화와 언어의 점수는 1점 부근에 나타나 있으므로, 조선족 문화와 언어를 고수하는 분리유형은 언어와 문화요인이 모두 'M-0.5SD' 이하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2) 청소년 적응

(1) 학교적응

본 연구는 학교적응을 학교에 대한 정서적인 태도로 정의한다. 즉, 아동이 학교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이며, 윤재은(1994)의 연구에서 사용된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학교생활이 지루하고 짜증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 잘 적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alpha는 .67로 나타났다.

(2) 교육기대

응답자는 자신이 원하는 장래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1)고중(고급중학교를 의미하며 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2)전과(한국의 전문대학에 해당한다), 3)대학, 4)석사, 5)박사의 범위에서 응답하였다.

(3) 내적통제성

내적통제성은 Nowicki와 Strickland(1973)의 A locus of Control Scale을 토대로 민하영(1999)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내외통제성 20문항 중 내적 통제성 10문항만을 측정하였다. “열심히 노력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어렵다” “학교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어 높은 점수는 내적 통제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내적 통제성의 Cronbach's alpha는 .51로 신뢰도가 낮은 편이나 역시 척도의 개발자들(Nowicki & Strickland, 1973; 민하영, 1999)과 많은 연구들의 검증을 거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월에 걸쳐 수집되었으며, 조사는 중국 심양에 있는 2개의 초중·고등학교와 할빈에 있는 1개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한 후 최종 914부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향을 분석한 후,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문화접변 유형의 분류하여 통합, 동화, 분리 유형에 속하는 사례(심양 청소년 296명, 할빈 청소년 91명)들이 실제 분석에서 사용되었고, 세 유형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사례들은 문화접변 유형에 관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를 사용하여 문화접변 유형의 분류와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문화접변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적응, 교육기대 및 내적통제성의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ANOVA 및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심양과 할빈 조선족 청소년의 일반적 경향의 차이

각 변수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문화접변유형 분류의 기준이 되는 두 요인인 언어요인과 문화요인, 학교적응, 교육기대 및 내적통제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표 1). 언어와 문화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이 양극단적으로 구성되어 1점은 조선어(조선족)사용을, 3점은 대략 반반씩 사용, 5점은 한어(한족)사용을 뜻하므로 심양청소년(M=3.35)이 할빈청소년(M=2.57)에 비해 언어요인에서 중국어를 조금 더 많이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t=11.29$, $P<.001$). 내적통제성의 경우에는 할빈의 청소년(M=3.62)이 심양의 청소년(M=3.52)보다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t=-2.73$, $p<.01$). 그 외 문화요인, 학교적응, 교육기대 등의 변수에서는 심양과 할빈의 청소년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심양과 할빈 조선족 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별(통합, 동화, 분리) 분포

<표 2> 와 <표 3>에서는 각각 심양과 할빈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문화접변의 세 유형(통합, 동화, 분리)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와 <표 3>에서는 심양과 할빈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문화접변 유형을 많이 보이는지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 심양 청소년의 경우(표 2), 통합유형과 동화유형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분리유형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낮게 나타나, 조선족 고유의 문화와 언어만을 주로 사용하는 청소년들보다는 중국어와 중국문화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았다. 한편, 할빈에 거주하는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표 3), 통합과 동화유형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낮고, 분리유형의 관측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더 높게 나타나 심양의 청소년들이 보인 문화접변 유형의 분포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할빈의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 중국문화와 조선족문화를 모두 수용하는 통

<표 1> 심양과 할빈 조선족 청소년의 일반적 경향의 차이

	심양 청소년 (n=669)			할빈 청소년 (n=245)			t
	평균(M)	표준편차	n	평균(M)	표준편차	n	
언어	3.35	.92	640	2.57	.93	242	11.29**
문화	2.44	.74	643	2.47	.70	236	-.69
학교적응	3.59	.77	650	3.64	.67	238	-.90
교육기대	3.79	1.11	640	3.73	.99	236	.80
내적통제성	3.52	.48	662	3.62	.46	242	-2.73**

p<.01 *p<.001

<표 2> 심양 조선족 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의 분포

문화접변 집단	관측빈도(%)	X ²
통합	114(38.51%)	8.76*
동화	107(36.15%)	
분리	75(25.34%)	
전체	296(100.00%)	

* p<.05

<표 3> 할빈 조선족 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의 분포

문화접변 집단	관측빈도(%)	X ²
통합	16(17.58%)	37.87***
동화	17(18.68%)	
분리	58(63.74%)	
전체	91(100.00%)	

*** p<.001

합유형이나 중국문화와 중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동화유형보다는 조선어를 더 많이 쓰고 조선족 문화에 더 많이 참여하는 분리유형이 더 많았다.

3. 심양과 할빈 조선족 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 교육기대, 내적통제성

다음으로, 조선족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 세 문화접변 유형(통합, 동화, 분리)간에는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4>와 <표 5>는 3가지 문화접변 유형별로 심양과 할빈의 조선족 청소년들의 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산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심양에 거주하는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 교육기대($F=6.69$, $p<.01$) 및 내적통제성($F=5.71$, $p<.01$)에 있어 문화유형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4). Sheffe의 사후검증을 시행한 바에 의하면 통합과 동화유형에 속한 청소년은 분리유형에 속한 청소년보다 교육기대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동화유형에 속한 청소년이 분리유형에 속한 청소년보다 내적통제성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즉, 분리유형의 청소년이

교육기대는 낮고 내적통제성은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할빈에 거주하는 조선족 청소년의 경우 3개의 변수 모두에 있어 문화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5).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심양과 할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접변 유형을 파악하고, 문화접변 유형에 따라 학교적응, 교육기대 및 내적통제성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양과 할빈의 조선족 청소년들이 각각 문화접변의 언어요인과 문화요인, 학교적응, 교육기대, 내적통제성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 심양의 조선족 청소년들이 할빈의 조선족 청소년들보다 중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며, 할빈의 조선족 청소년들이 심양의 조선족 청소년들보다 내적 통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양은 할빈보다 규모가 큰 대도시

<표 4> 심양 조선족 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 교육기대, 내적통제성

변수	문화접변유형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	
학교적응	통합	3.60	.70	110	2.31	
	동화	3.41	.76	106		
	분리	3.62	.75	71		
교육기대	통합	4.01	1.00	113	6.69**	A
	동화	3.83	1.20	106		A
	분리	3.42	1.03	74		B
내적통제성	통합	3.48	.48	110	5.71**	AB
	동화	3.39	.52	103		A
	분리	3.65	.46	71		B

** $p<.01$

<표 5> 할빈 조선족 청소년의 문화접변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 교육기대, 내적통제성

변수	문화접변유형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F
학교적응	통합	3.45	.43	15	.72
	동화	3.76	.79	16	
	분리	3.69	.71	55	
교육기대	통합	4.06	.85	16	.88
	동화	3.94	1.14	17	
	분리	3.75	.90	56	
내적통제성	통합	3.49	.42	15	.97
	동화	3.66	.47	17	
	분리	3.67	.44	56	

로 국제화가 이루어져 많은 정보와 기회가 있으며, 이로 인해 심양에서는 중국어를 사용할 기회도 할빈보다 많으며 또한 중국어 습득의 중요성을 깨달을 기회 또한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선어를 더 많이 쓰는 할빈의 조선족 청소년들이 심양의 조선족 청소년들보다 내적 통제성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민족정체성과 언어의 유지가 내적 통제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어, 민족 언어와 문화의 보존이 조선족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에도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언어와 문화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문화접변 유형을 분류해 본 결과, 심양의 경우 통합과 동화유형이 기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분리유형이 기대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할빈에서는 반대로 분리유형이 기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통합과 동화유형이 기대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합유형의 분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미국의 연구(Castro, 2003)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도시규모가 큰 심양의 경우 중국 문화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있으며, 산업화와 국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취업과 장래에 대한 고려로 인해 조선족 고유의 문화와 언어보다는 중국의 문화와 언어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조선족 청소년들이 깨닫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심양에 비해 작은 규모의 도시인 할빈에서는 상대적으로 중국 문화에 덜 노출이 되어있고, 따라서 조선족 문화와 언어를 심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할빈이 연변자치주와는 달리 조선족의 인구비율이 크지 않고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지역이나 아직도 많은 조선족이 조선족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지키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조선족이라 할지라도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특성에 따라 다른 문화접변 유형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문화접변 유형별로 나타난 조선족 청소년의 적응(학교 적응, 교육기대 및 내적통제성)의 정도에 있어서도 심양과 할빈의 조선족 청소년들이 다른 결과를 보였다. 심양의 조선족 청소년들은 문화접변 유형별로 적응의 정도에 있어 차이를 나타낸 반면, 할빈의 조선족 청소년들은 문화접변 유형간에 적응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심양과 할빈은 공업도시이며 각각 요녕성과 흑룡강성의 성도란 점에서 유사한 면도 많으나 차이점도 없지 않다. 이주 역사의 측면에서도 흑룡강성의 할빈은 전라도와 경상도 출신이 많은 반면 심양지역에 평안도 출신이 많은 점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심양이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보다 큰 대도시로 중국의 4대 도시인 점 등 도시 규모면에서 할빈과 차이가 나기도 한다. 보다 큰 규모의 도시인 심양의 조선족 청소년들이 문화접변의 태도에 따라 적응에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도시의 규모가 더 큰 만큼 중국문화를 보다 많이 접하게 되고 또한 국제화되어 가는 사회의 흐름도 자주 접하게 되어 그에 따른 문화접변 태도가 청소년의 적응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보다 심도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심양과 할빈의 조선족 청소년에 대해 보다 많은 기초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문화접변 유형별로 조선족 청소년의 적응이 달리 나타난 심양의 경우, 중국언어와 문화에 더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동화유형과 중국언어·문화와 조선족언어·문화를 동시에 가까이 하는 통합유형의 청소년들이 조선족언어·문화를 더 가깝게 여기는 분리유형보다 교육기대에 있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교육기대에 있어서는 심양의 조선족 청소년들 중 분리유형이 통합·동화유형의 청소년들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선어와 조선족 문화를 고수하는 유형은 중국문화를 가깝게 대하는 동화유형이나 중국언어·문화와 조선어·문화를 모두 수용하는 통합유형보다 자신의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가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조선족 청소년들의 장래문제에 있어 중국어와 중국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은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수준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중국어와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중국어·문화에 참여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최소한 조선어·문화와 함께 중국어와 중국문화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내적 통제성은 동화유형의 청소년들보다 분리유형의 청소년들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행동의 결과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같은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파악하는 성향을 뜻하는 내적 통제성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주로 높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적응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으며(김애경, 2003; 이경남, 2000), 이러한 내적 통제성이 높게 나타난 분리유형 또한 긍정적인 적응능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주류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면서 모국어와 모국의 문화를 지키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조선족 청소년들은 여전히 모국어를 사용하고 조선족 문화를 보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 또한 내적통제성이라는 보다 나은 적응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할빈의 조선족 청소년들은 문화접변 유형별로 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할빈에서 분리유형이 많고 통합과 동화유형의 사례수가 적게 나타난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할빈 청소년들이 분리유형에 속해 있어 문화접변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적응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심양과 할빈의 조선족 청소년들은 통합·동화·분리의 문화접변 유형의 분포에 있어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심양의 경우 문화접변 유형에 따라 청소년들의 적응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중국문화를 수용하는 통합과 동화유형이 자신의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가 분리유형보다 높았으며, 조선족 언어와 문화를 더 가까이 하는 분리유형은 내적통제성이 다른 유형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연구들이 문화적접변의 유형을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의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는 주변화 집단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할 정도로 작은 분포를 보인다는 선행연구(Castro, 2002)의 주장과 중국 조선족 이민의 고유한 특성에 근거하여 중국어·문화도, 조선족어·문화도 거부하는 주변화 유형을 제외하고 통합, 동화 및 분리의 세 유형만을 분석하였다. 네 가지 유형을 모두 분류·분석하는 후속연구가 나온다면 본 연구와 비교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심양과 할빈의 조선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중국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청소년들에게까지 그 결과를 적용하기는 힘들다. 특히 연변자치주의 조선족 청소년들은 조선족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문화적접변의 양상이 심양이나 할빈의 조선족 청소년들의 그것과는 다른 형태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연변자치주의 조선족 청소년들과 심양이나 할빈과 같이 조선족이 소수민족으로 살아가야하는 지역의 조선족 청소년들의 문화적접변 유형의 분포를 비교해 본다면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국내 거주하는 조선족 중 특히 그 생활상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심양과 할빈의 조선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문화적접변 유형을 분류하고 분석하였는데 큰 의의가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적응에 관련하여 보다 발전된 모델로 확대하고 문화적접변과 청소년의 발달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접수일 : 2004년 07월 15일
- 심사일 : 2004년 07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9월 22일

【참 고 문 헌】

김애경(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3, 351-372.

노치영(2000). *통일 한국을 대비한 연변의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인간생활환경연구소 특별 세미나 발표자료.

민하영(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통제소제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성연·김미경·도현심(2000). 연변 조선족 어머니의 문화적접변 및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 159-175.

윤복남(1997). 캐나다 거주 한국인의 사회문화적응과 자녀교육에 관한 연구. *안암교육학연구*, 3(1), 21-69.

윤재은(1994). *영제집단의 학교생활 적응과 스트레스 및 그 대처 방법 : 특수목적고교와 인문고교의 비교*.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님(2000). 아동의 행동문제, 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동아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논문집*, 8, 37-52.

이장섭(1993). 해외한인의 문화적접변. *민족과 문화*, 1, 77-97.

한국민속박물관(1997). *중국 요녕성 한인동포의 생활과 문화*. 한국민속박물관.

한국민속박물관(1998). *중국 흑룡강성 한인동포의 생활과 문화*. 한국민속박물관.

Aycan, Z. & Kanungo, R.N. (1998). Impact of acculturation on socialization beliefs and behavioral occurrences among Indo-Canadian immigrant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9, 763-765.

Berry, J. W.(1984). Cultural relations in plural societies: Alternatives to segregation and their sociopsychological implications. In B. Miller & M. Brewer(Eds.). *Groups in contact: The psychology of desegregation* (11-27), London: Academic Press.

Berry, J. W., Kim, U., Power, S., Young, M. & Bajaki, M. (1989). Acculturation attitudes in plural societie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38, 185-206.

Buriel, R. (1993) Child-rearing orientations in Mexican American Families: The influence of generation and sociocultural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87-1000.

Castro, V. S. (2003).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CT: Westport. Greenwood press.

Cho, B, Park, H. & Lee, K. (2004). A Comparison of Locus of control and School-related factors in Korean-Chinese and Korean Children. *Journal of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Home Economics*, 11, 65-71.

Chui, L., Feldman, S. & Rosenthal, A. (1992). The influence of immigration on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distress in Chinese families residing in two western nation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 205-239.

Doná, G. & Berry, J. W. (1994). Acculturation attitudes and acculturative stress of Central American refuge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9(1), 57-70.

Farver, J. A. & Lee-Shin, Y.(2000). Acculturation and Korean-American Children's social and play behavior. *Social Development*, 9, 316-336.

Galper, A., Wigfield, A. & Seefeldt, C. (1997). Head start parents' beliefs about their children's abilities, task

- values, and performance on different activities. *Child Development*, 68, 897-907.
- Gordon,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rwood, R.L., Leyendecker, B., Carlson, V.J., Asencio, M. & Miller, A.M. (2002). Parenting among Latino families in the U.S. To appear in M.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2nd Ed). Mahwah, NJ: Erlbaum.
- Koayashi-Winata, H. & Power, G.(1989). Child-rearing and compliance: Japanese and American families Houst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0, 333-356.
- Laroche, M., Kim, C., Hui, M. & Joy, A.(1996). An empirical study of multidimensional ethnic change: The case of the French Canadian Quebec.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7, 114-131.
- Lee, H.(2000). *Parental efficacy and practices among Korean immigrant families in the US: Relations with family functioning, familism, and accultu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yracus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Leonard-Spark, J. & Saran, P. (1980). The Indian imigrant in America: A demographic profile. In E. Eames & P. Saran (Eds.). *The New Ethnics: Asian Indians in the United States(136-162)*, New York: Praeger.
- Lonner, W. & Berry, J.(1989). *Field methods in cross-cultural Research*. Beverly Hills, CA: Sage.
- López, E. J., Ehly, S. & García-Vázquez, E.(2002). Acculturation, social suport and academic achievement of Mexican and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Psychology in the Schools*, 39, 245-257.
- Mendoza, H. & Martinez, L. (1981). The measurement of acculturation. In A. Baron, Jr.(Ed.). *Explorations in Chicago Psychology (71-82)*, New York: Holt.
- Nauck, B.(1988). Migration and change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International Migration*, 26, 24-48.
- Nguyen, H., Messe, A. & Stollark, E. (1999). Toward a more complex understanding of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Cultural involvements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Vietnamese yout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 5-31.
- Nowicki, S. & Strickland, B. R.(1973).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Co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148-154.
- Okagako, L. & Frensch, P.A.(1998). Parenting and children's school achievement: A multiethnic perspectiv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5, 123-144.
- Okagako, L. & Sternberg, R.J.(1993).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4, 35-56.
- Patel, N., Power, G. & Bhavnagn, P. (1996). Socialization values and practices of Indian immigrant parents: Correlates of Modernity and acculturation. *Child Development*, 67, 302-313.
- Piontkowski, U., Florack, A., Hoelker, P. & Obdrzálek, P. (2000). Predicting acculturation attitudes of dominant and non-dominant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1-26.
- Roccas, S., Horenczyk, G. & Schwartz, S. (2000).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Hispanics: Convergence and new directions for research. *American Psychologist*, 46, 585-597.
- Szapocznik, J., Kurtines, W.M. & Fernández, T.(1980). Bicultural involvement and adjustment in Hispanic-American youth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4, 353-365.
- Truba, H.(1988). Peer socialization among minority students: A high school dropout prevention program. In H. Truba & C. Delgado-Gaitan(Eds.). *In school and society: Learning content through culture(201-217)*, New York: Praeger Press.